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9월)

일시	2019. 9. 19.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요수, 김형순, 박미자, 이나건, 이묘숙,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8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회의 내용

- 최영태 위원장 : -반갑다. 지난번 수영대회 취재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핑크피쉬> 집에서 보는데 즐거움 느끼고 있다. 감사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뵙게 돼 반갑다. <핑크피쉬>가 한국방송대상을 받았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다. 이봉주 선수와 같이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지질공원 지정 기념으로 마라톤대회를 10월 27일에 하는데 홍보대사를 맡아줘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등산권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미리 신청해서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중요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다. <농업이 미래다>는 전 계열사 참여하는 16부작이다. <핑크피쉬> 1~3편을 계속 했고 다음 주부터는 올해 새로 제작한 7편을 화요일 밤에 방송한다. 개발한 레시피로 팝업 레스토랑을 하고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한다. 나름대로는 시청자위원의 지적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방송하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를 해달라.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핑크피쉬>가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어서 방송을 10부작 하고 있다. <농업이 미래다>를 방송하고 있고, UHD <세계지질공원>이 방송 예정돼 있다. 지역분권특강 11부작을 10월 중순부터 편성 예정이다. <아시아 탐 밴드>는 지난여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bcww 제작발표회에 참가를 했고 다음 주 에이스페어가 광주에서 열리는데 그 기간동안 참가국 대표자 회의 및 협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큰 대회 결산 특집방송을 8월 17일에 했다. 또, 영광갯벌축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했고 10월 27일날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 한신구 보도국장 : -광주지역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광주시청에서 있었다. 특혜 논란과 함께 검찰수사 방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의 최대 숙제 중의 하나인데, 합작법인이 지금 대표이사 선임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 노사민정회의가 있었는데 노동계는 불참을 했지만 합작법인은 23일에 법인설립을 한다고 최종확정이 되었다 한다. 대표자는 박광태 전 시장이 선임이 되었다. 가까스로 오늘 봉합은 됐지만 앞으로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하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

해 지역에서도 관심이 크다. 그 부분도 예방할 수 있도록 보도에 관심 갖고 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이 10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볼 예정이다. 창사특집토론 3부작 한참 진행 중이다. <광주 전남 대항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 2, 3부 준비하고 있다. 광주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해 활로를 찾아보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와 부산MBC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부마항쟁과 광주 5.18>이 10월 중순에 예정돼 있다. 이 부분은 부산과 광주가 방송시기를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이 5.18 40주년인데 특집다큐를 한창 제작 중에 있다.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가제하에서 5.18을 알린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1부, 2부로 나뉘어서 제작될 예정이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스위스 출장을 갔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제16회 빛고을 나눔장터가 10월 19일 토요일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재활용품 재사용 및 기금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부행사를 진행한다. 광주MBC 명사 기증품 경매전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안 쓰는 물건이나 기념될만한 물건이 있다면 기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제1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10월 27일날 담양의 광주댐 위에 있는 한국가사문학관에서 화순 백아산, 무등산 뒤편에 있는 자연휴양림 코스에서 하프마라톤 10km, 5km 코스로 진행이 된다. 10월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많은 참여와 소개 바란다. 또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모바일 플랫폼 연결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개편 후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문제점과 이용자 불편사항이 있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10월 초에 완료해서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세계지질공원>은 여러 해에 걸쳐 하는 건가?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작년에 한 편 방송했는데 올해 2편 해서 3편 방송 예정이다.
- 최영태 위원장 :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는데 4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되어있다. 지질공원은 보전과 더불어 교육, 관광에 있어서 지난번 인증받을 때 접근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원효사에서 장불재까지 군사도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에서 장애인 노약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게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와서 내일부터 찬성측과 반대측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마침 10월에 지질공원 한다니까 서로 잘 맞물려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송일준 사장 :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지질공원 세계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허민 교수와 사업국이 같이 참여를 했다. 광주MBC 지오마라톤대회 이런 것들이 지질공원 지정의 원래 취지인 지역 활성화, 주민들 삶의 질 개선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이런 게 실적이 다 될 거 같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시간을 갖겠다.
- 김요수 위원 : -광주는 문화가 큰 먹을거리라고 생각한다. 9월 18일 뉴스투데이에서 세 쪽지를 연속한 게 있는데 하나가 '문화수도의 초라한 성적표'라고 해서 지나온 이야기를 잘 해주었다. CT 연구원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주가 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준 것 같고, 강신겸 교수의 문화제안 뉴스는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미래의 문화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제시해준 보도 같다. 이런 뉴스들이 잘 꾸며져서 이걸 소재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심층취재를 통해 광주가 더 멋진 문화의

길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날 광산구 아파트의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 보도와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아파트 옥상문의 개폐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도한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였다고 생각이 든다.

- 조속경 위원 : -김요수 위원과 같은 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코멘트를 하고 있다. 아주 시의 적절하고 좋은 기사다. 제 관심은 보도에 그치지 말고 시리즈 심층 기획 기사를 만들면 정말로 광주가 문화수도가 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 최영태 위원장 : -연휴가 있었는데 8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추석 관련 보도를 보니까 12, 14, 15일날 뉴스는 고속도로 사정과 관련된 내용뿐이었고, 추석날은 공동 묘역의 성묘라던가, 도시인의 여가 등의 내용이였다. 아쉬운 것은 요즘 농촌이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 옛날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런 모습도 비춰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김요수, 조속경 위원님과 비슷하다. 문화수도 관련 뉴스가 세 꼭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콘텐츠, CT 연구원, 또 하나는 구 도심 활성화 문제인데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우리가 문화도시 얘기를 할 때 정부가 문화전당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했느냐, 인원을 몇 명을 배정했느냐, 늘상 외부의 지원에 대한 얘기만 했지, 우리 스스로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작고 문화도시 사업이 돈으로 모래성 쌓기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많이 한다. 광주시민들의 문화지수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다. 광주가 문화도시를 지향할 때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산이 단 0.01%라도 많은가. 비율에 있어서. 광주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예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 하나는 17년 동안 문화전문가를 양성하려고 노력했는가. 문화정책실장 같은 경우 보면 임기가 1, 2년 돌아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 전혀 전문가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외부의 노력만 기대하고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해주길 바란다.
- 이요숙 위원 : -문화도시 말씀하셨는데 10월 초부터 문화주간이 광주에 있다. 총장축제, 무등울림 등 다양한 도심형 축제가 진행된다. 뉴스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을 지적한다 해도 그러면서 대안으로 펼쳐지고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지를 못한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정책을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부분도 미리 어떤 사건 사고 보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것을 언론에서 취재한 다음에 그것들이 접목될 수 있는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9월 8일 세트 배경이 다크한 어두운 배경이다. 출연하신 분들이 짙은 색의 정장을 입고 계셨다. 화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배경에 묻혀서 얼굴 부분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화면의 불편한 상황 속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방방송이 갖고 있는 화면상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급스럽지 않은 화면연출이다. 가장 크게는 조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서울이나 중앙방송이 주는 세련된 화면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분장이 상당히 작용된다고 본다. 연예인처럼 분장을 해야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출연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출되는 얼굴과 의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컨트롤 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연출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배경화면이 이제까지 진행됐던 블랙화면이었다면 약간의 세트적인 상황으로 신속히 즉각적인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시사본색>이 안정화 됐지만 약간 관성적으로 출연진만 바뀌고 포맷은 똑같은 느낌이 있다. 굳이 번잡하게 매회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세트의 구성이나 공간구성을 그때 나오는 이슈에 맞춰 살짝 변화를 주면 훨씬 설득력 있는 시사프로그램으로서 품격 있는 방송이 될 것 같다.

- 최선희 위원 : -9월 8일 <시사본색> ‘이슈저격’을 내용에 집중해서 말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성비위 사건 그리고 스쿨미투까지 미투에 대한 젠더적 시각과 성인지적 관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도출된다. 과거에 없던 게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덮어두었던 것을, 즉 껌질 하나씩 벗기는 것처럼 되어있다. 마침 9월 8일날 동성여중 교사지만 남성 교사였고 그리고 여성 한 분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 윤리에 관한 내용이지만 <억압받는 다수>라는 영화의 내용을 시사적으로 보여주며 발언한 도덕 교사의 멘트가 이슈가 된 것 같다. 내용적으로는 전체 60분에서 ‘이슈저격’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큰 범위의 내용이고, 이걸 좀 더 심화해서 시리즈로 가도 젠더적 시각에 성인지적 시점을 어떻게 앞으로 수용하고 다듬을지 심각하다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절감했다. 억압받는 다수의 영상을 배경으로 깔면서 대담을 다룬다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 프로그램의 성향은 시사적인 성향을 토론과 자막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녹화도 해서 방영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충격을 줘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어떻게 <시사본색>에서만 다 다루지 않고 다시 재편성해서 광주MBC에서 다뤄주면서 교육행정에서만뿐만 아니라 직장 간, 부모자식 간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범위인데 마침 때에 맞춰 잘 꼬집어내 줬다. ‘시사탐구’로 넘어가면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 두 분이 나왔는데 조국 문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잘 꼬집어냈다. 9월 8일에 다룬 토크는 30분만 다루기엔 단순히 훑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본격 시사프로그램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정립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여론이 공론화되는 과정과 시청자 의견을 가슴에 담거나 안착시키면서 좀 더 건전하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는 방향의 각도는 다르다고 본다.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갖는 역할은 비단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각각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의 역할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최영태 위원장 : -성비위냐 아니냐의 문제와 더불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의 충돌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 김요수 위원 : -<오매 전라도> 9월 11일자를 유심히 봤다. 칠산대교와 칠산타워를 소개했다. 새로운 관광지 소개 좋았다. 광산구의 청년맛집을 소개했는데 젊은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앞으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좋았다. 춘천 농부의 시장 나들이에 대한 꼭지를 보면서 저는 다른 지역 MBC의 제작과정, 포맷 이것이 광주의 프로그램 구성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매 전라도>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광주의 방송에서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 같다. 앞으로는 젊

은이를 많이 출연시켜야 할 것 같다. 관광이나 귀농에서 젊은이가 중심이 되어 가면 좋겠다. 방송의 앞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방송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박미자 위원 : -<오매 전라도>가 생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 능수능란한 부분이 필요하다. 현장에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 계시는 분들도 진행에 있어서도 진행을 잘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명절연휴 전날 9월 11일날 저는 깜짝 놀랐다. 스튜디오에서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MC들이 시식까지 하고, MC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부분이나 진행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9월 2일 아주대 닥터헬기 7호기 시범 운항 취재에서 이국종 교수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다. 생기있는 진행도 좋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시청자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두 MC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끔 보면 여자 MC가 속도가 좀 빠르다. 밖에 나가 있는 리포터는 현장의 생동감을 주는데 스튜디오 내에서는 정확한 전달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오매 전라도>가 생방송으로서 제가 아줌마라 그런지 잘 보는 프로그램인데 날로 발전도 하고 기대에 맞춰 잘 나가는 것 같아 흡족하게 보고 있다.
- 조숙경 위원 : -<오매 전라도> 17일인지 18일인지 방영분이었는데 에이스페어 소개 방송에 전남대 교수님이 나와 말씀하셨었다. 그 교수님은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두 MC는 캐주얼한 복장이라 매치가 잘 안 됐다. 그리고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진행자를 보게 되니까 화면에서 교수님의 옆면만 나오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그 날 특별히 게스트가 서 있는 뒷면을 유심히 보게 됐다. 그 뒷면에 <핑크피쉬> 인형 두 개와 그 옆에 작은 액자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세로로 광주MBC가 영어로 써 있었던 것 같았다. MC 두 사람 뒷면에 <오매 전라도>라는 타이틀이 써 있었던 것처럼 게스트 뒤에도 <오매 전라도>라고 써두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세트의 느낌이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다.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느꼈다. 외부 리포터는 말도 빠르고 약간 과장된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스튜디오 내의 여성 진행자의 말이 리포터와 별 차별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차분하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박미자 위원 : -<문화콘서트 난장> 같은 경우 관객도 젊은 층이고 거기에 나와 공연하는 출연자도 무명의 인디밴드나 유명하지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팀들이 많이 나온다. 젊은 인디그룹 위주의 출연자이긴 하지만 사회자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 출연자의 성격상 본인을 스스로 소개하고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컨셉이 난장이다 보니 출연자가 본인을 소개하고 공연하는 게 컨셉이라 그런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활발하게 짧게라도 진행자가 소개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 인디밴드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같이 소개도 직접 하고 인터뷰도 해주면서 출연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오매 전라도>나 <시사본색>은 인터넷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난장>은 보면 99회 어떤 건 200회 등 조회수가 있다. 젊은층이 대상이다 보니 관심이 있는지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인터넷 조회가 현저하게 많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해야 할 것 같다. 무대 얘기도 했는데 내용상 스튜디오 부분도 악기 같은 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난장>

을 나타내거나 <난장> 무대를 꾸며줬으면 하고, 축제로서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간간이 관객들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을 자주 듣는다. 지난번에 한 번 건의했던 내용인데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말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 그래서 글로벌모터스의 대표를 빨리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인터뷰와 또 거기에 적절하게 그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사회단체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세 인터뷰를 통해서 글로벌모터스의 진행이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걸 청취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했다고 본다. 가끔 생방송이고 인터뷰는 각본이 없다 보니 시간상 급히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방금 했던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속에 약간 분명히 인터뷰 했던 내용이 아닌데도 이런 것이시죠? 물어보고 마무리하는 경우를 한두 번 들었다. 인터뷰할 때는 사전에 시간적 부분이나 내용적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명확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되면 어떨까. 진행자가 해박한 지식으로 잘 하고 있어서 잘 듣고 있다.

- 이묘숙 위원 : -1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문제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간의 접근성과 장애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도적인 것만 다뤄왔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의 표면화로 끌어들이면서 우리에게도 인식의 전환과 함께, 또 우리가 장애인과 우리 자신을 차별화 두는 것도 굉장히 격차를 좁혀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굉장히 장애인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동화가 돼가는 프로그램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시사성, 정치적인 문제 등 이런 이슈에 대한 보도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나 더불어 사는 사회, 이 부분에 대한 코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점과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지 못한 하나씩 내용을 꼬집어내는 담담을 하는 리포터와 프로그램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다.

-라디오 칼럼니스트들이 다양한 층으로 돼 있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40~50대 이상으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칼럼 내용이 꼭 정치성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사회적이지 않은 다양한 각각의 전문적인 것들을 또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칼럼 하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역할이 사회 전반의 이야기를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라디오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사회적인 관점들을 서로 나누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런 다른 시각을 놓치고 살고 있던 것을 재인식하게 돼서 <라디오칼럼>에 대해서는 각각의 칼럼니스트를 선별해서 구성하고 있는 MBC의 해안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조숙경 위원 : -앞서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만 같다. 저 역시 <황동현의 시선집중> 코너 중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다루는 장애인 코너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코너다.
- 김요수 위원 : -9월 8일자 <시청자가 만드는 TV>에서는 장애인 예비작가들의 인두화를 소개하고 광주 관광을 온 젊은이들이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일기와 어르신과 아이들이 계곡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재로 우리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아이টে이 좋았다. 그동안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참여했었다면 생활형 아

이템을 찾고 자극형 방송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보용 소재를 선택할 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색한 아마추어리즘을 살린다는 뜻도 담겨 있어서 좋았다. 문제는 너무 아마추어리즘이었다. 시청자의 눈높이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는 웃음을 끌어낸달지, 감동을 끌어내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 특별강연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냈다. 긴 강연이었을 텐데 5분짜리로 편집해냈다.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저한테는 내용이 강하게 다가왔다. 첫 대목이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이 이끌어지면서 빠져들게 되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고 그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무엇인지 제시하는 이야기였다. 요즘 20, 30대 김대중을 잘 모르는 분들도 본다면 김대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지도자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제목이 일본 우경화를 예견한 대통령 이런 제목 때문이다. 유튜브 영상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클릭수가 달라진다. 감각적이고 현재의 트렌드를 감안한 제목을 붙여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영상은 앞으로 두고두고 클릭 수가 많아질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저도 이게 카톡 방에 오르내려 깜짝 놀랐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대 왔을 때 직접 강연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으로 발체를 했을까.

○ 이나건 위원 : -저는 특성상 콘텐츠를 유튜브로 많이 본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 중복되는 콘텐츠가 있다. 썸네일도 비슷해서 2개나 많으면 3개씩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 분석을 해보니 동일한 내용을 방송에서 송출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두세 번 올라간다. 중복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스마트미디어사업단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널이 많다. 거의 7개 정도 된다. 다 게재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는 채널은 유니콘TV 채널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다른 지역방송사에서는 스타트업과 관련해 다루는 채널이 없다. 이쪽 이슈를 좋아하는 팬층도 생각보다 많고, 다른 채널에서는 많이 올라온다. 유튜브 콘텐츠로서 스타트업들을 조명할 수 있는, 요새 이슈가 많다.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트렌디한 이슈도 좋고 지역 내 활동하는 청년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문화도시 광주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창작자이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게임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 많이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다. 지역에 있는 진흥원이 지역의 허들을 두고 있다. 지역에 있는 진흥원에 지원을 하면 우선 혜택을 주는데 유일하게 광주에 있는 진흥원은 열어났다. 주변에 콘텐츠 관련된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에 있는 진흥원이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 이미 돈이 잘되는 웹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매출이 안 뜨고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은 매출이 안 뜨니까 서울에서 끌고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불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 광주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인식이 있

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내본다.

- 이요숙 위원 :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볼 때 화면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방송콘텐츠를 TV로 시청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활용한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의뢰하고 있는 담당 쪽에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화면 구성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딱 봤을 때 광주MBC라는 로고 외에 이 화면이 과연 방송사의 화면인가 할 만큼 빈약하다. 무대의 세트만 빈약한 게 아니다. 누구라도 광주MBC에 접속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아무리 대단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그다지 신뢰도가 생기지 않는다.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정보가 드래그를 하면서 한 손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한 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홈페이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시민이나 네티즌이 접속하는 것은 인터넷상이다. 이런 것들을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디자인과 구성 그리고 스스로가 과연 내가 시청자라면, 시민이라면 홈페이지랄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취득할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체득해가면서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화제의 영상도 오늘 바뀌었다. 업로드 기간이 나흘에 걸쳐 한다는 게 안타깝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하다. 답변 바란다.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난장>이 2007년에 시작했다. 지금 형태는 작년부터 유지선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직접하고 공연하는 걸 지향하고 있다. 그 안에 MC가 등장했던 시기가 있고 없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중에 있다. 11월달에는 나주정미소에 <난장> 제작센터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공연하는데 그때는 제8대 MC를 등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디오칼럼>은 청년들을 좀 더 배려 차원에서 출연을 시키도록 유도하겠다. 방송에 젊은이들이 나오도록 하겠다. 박미자 위원 말씀하신 <오매 전라도>는 진행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작진도 놓친 부분을 체크해줘 감사드린다. 게스트가 나와서 시선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다. 세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보겠다. <시청자TV> MC 부분은 산학협력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출연시키는데 훈련을 많이 시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은 좋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체크해보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산업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셨다. 그동안 보도가 문화전당에 치우져 있었다. 문화전당 설계 때부터 랜드마크 논쟁도 있었고 도청별관 문제에 많은 집중이 되어서 문화전당의 기능적 측면이었던 교류나 인재양성 등 상대적으로 보도가 약했던 건 사실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 갖고 보도하겠다.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해 연구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서 취재하도록 하겠다. 뉴스 부분 지역방송 세트를 지적해주셨는데 지역방송의 영원한 숙제다. 전용 세트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프로그램 하루 전에 세트 설치하고 해체하고 다른 프로그램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세트나 분장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뉴스 진행자나 이런 부분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어서 고민하고 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은 내년엔 본격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창사 55주년 특집이 끝나면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지금처럼 형식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형식을 한시적으로는 후보자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할지 보도국에서 고민하고 있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프로그램이나 보도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광주MBC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김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우경화 관련된 DJ 관련 콘텐츠는 사실은 저희가 DJ 서거 10주기 때 그동안 갖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루종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새롭게 제작한 40여 개 콘텐츠 중 하나였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게 8월 14일에 올렸고 실제 조회수가 터지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된 건 8월말에서 9월초다. 일본 우경화 관련되어 DJ가 미리 예측하기도 했지만 커뮤니티에서 본격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돌면서 급격히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슈가 되니까 <오늘밤 김제동>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다. 미디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관심이 높아지면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이런 형태다. 2006년에 DJ가 전남대 특별강연을 했던 건데 기존 폴 버전도 10만 회 이상 정도로 괜찮은 콘텐츠다. 일본 우경화, 극우화 문제와 관련되면서 히트가 된 상황이다. 이나건 위원님의 보도 관련된 콘텐츠 중복게재 문제는 뉴스투데이, 데스크인데 분할해서 올리는 과정 중에 중복게재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국과 협업해서 수정되도록 하겠다. 유니콘TV 스타트업 창업자 전문채널로 론칭은 해냈다. 디지털 오리지널이라고 유튜브 채널에서만 제작해서 방송하는 건데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 고정적으로 업로드 해야 주목을 받게 되어있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런 상황이다. 저희가 10월 안에는 론칭을 해보려고 기획단계이고 정리 중이나 장담은 아직 못 드릴 것 같다. 올해 안에는 론칭 하려고 생각 중이다. 제작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최근에 2편 시작이 되면서 약간 후 순위에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하려고 생각하는 채널이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올 3월부터 홈페이지를 모바일 프렌들리 컨셉으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클립 단위로 하다 보니 수많은 클립 단위 콘텐츠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 방송사에서 통상적으로 프로그램별로 홍보하거나 잘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되어있는 그런 포맷에서 벗어나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 쉽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PC 베이스에 하셨던 분들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컨셉으로 시도를 해보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개편을 하려고 했다. 이번에 10월 초에 개편을 하게 되면 광주문화방송이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간단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클립 단위 콘텐츠도 전체적인 틀 안에 넣어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밖에 화면이 분할되어 보인다는 부분들은 개선해보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요숙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촘스럽고, 하지만 이 내용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든다. 사용하기 편하고 밝고 좋아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정 안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 지적받을 때마다 죄송하다. 박미자 위원께서 지난번에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감사드린다. 이요숙, 조숙경 위원께서

<황동현의 시선집중>을 칭찬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단체가 많다. 저희가 약자,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문제를 꾸준히 다루겠다. 지역에서 결국 그런 데에 방송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MBC는 과연 문화수도가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1인당 문화 지출비가 광주가 꼴찌라고 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전당장을 못 정해서 대행체제가 계속된다. 말로만 문화수도라고 한다. 점심 먹고 디자인비엔날레를 보고 왔는데 특별히 문화에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이라도 시민들이 쉽게 액세스 하고 가서 보면 뭔가 자극이 되고 계발이 되는 게 있다. 그런 경험들을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일상적으로 쉽게 자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광주는 앞서야 한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중에서도 문화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단 1%라도 높아야 하고 그래야 문화수도라 할 수 있다. 말씀 주신대로 통계자료를 따져서 문화수도다운 광주가 되자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광주시에 좋은 기획을 갖고 접촉해보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

- 김형순 위원 : -아침에 운동하면서 주로 보는 게 아침에 뉴스투데이이다. 첫 화면이 저녁에 컴컴한 광주의 야경으로 시작하니까 아침 첫 화면 뉴스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하는 거는 시원하고 활기찬 화면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핑크피쉬>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박미자 위원 : -평소 정치적이진 않지만 시민으로 바라본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정치라는 건 특별히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올바른 정치인을 뽑고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끌어들 수는 없다. 기획은 하신다 하니 하다못해 연령층, 영역별, 성별, 지역별로 깊숙이 시민들 속으로 가서, “당신이 국회에 가고 정치를 한다면” 등으로 방향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정치는 어떤 전문가만 만드는 게 아니다. 일반 소시민이 바라보는 정책과 필요한 얘기들과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토론을 하면서 말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면 시민들은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내 옆의 이웃이 하는 얘기, 즉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는 이런 거야. 나 아기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정치인이 있으면 뽑아줄 거야.”라고 내 옆의 이웃이 말하는 것처럼 분위기로 MBC가 이번에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정치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이루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0총선에서는 광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반영했으면 좋겠다.
- 송일준 사장 : -알겠다. 선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보도, 제작할 것 없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기획시리즈로 하겠다.
- 박미자 위원 : -너무 토론이나 전문가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각 마을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 최선희 위원 : -<핑크피쉬>가 한국방송대상 지역부문대상 큰 상을 받았는데, 캐릭터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에 기프트코너가 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살 게 없다. 이 시점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ACC에다

가 배부하는 등 판매를 다변화 하면 좋겠다. ACC에 지역교류협력센터가 있다. 문화수도인지 아닌지 이것은 광주시민들도 끊임없이 녹화하고 열도록 해야 한다. 줄탁동시 아니잖느냐. 시대가 끊임없이 시민들이 발휘하고 공론하는 것이 익숙한 코드로 가려면 문화수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광주MBC는 해야 할 몫이 많다.

- 이요숙 위원 : -저희가 데이터를 낼 때 문화 소비에 대한 얼마 정도의 지출과 경비가 드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광주가 문화를 소비시키는데 굉장히 어렵다. 공연과 전시가 거의 무료다. 그럼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없어서 300석, 100석의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친인척을 동원해서 이뤄지고 있다. 의식구조를 시민이 먼저 해서 문화를 즐기는 방향으로 해야지 모든 것이 예산이 주어져 그것을 행사를 하고 지표를 경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즐기고 횡수가 몇 번인가 만족도가 있었던 문화는 어떤 측면인가 봐야 한다. 그걸 유도해주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다.

끝.